

2020년 3월 2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재정 지출 합의 지연 우려로 매물 출회 샌더스, “실업보험 강화 하지 않으면 부양책 보류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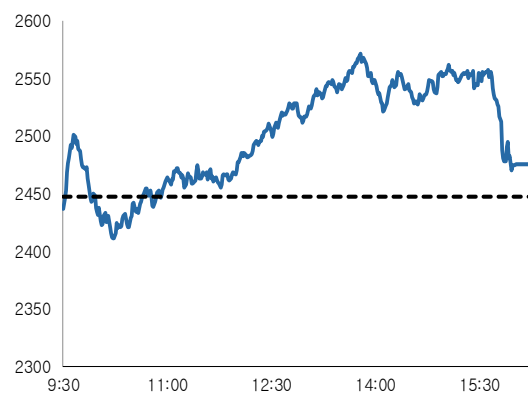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기대와 현실

미 증시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해 의회 합의 소식과 나이키(+9.24%)의 양호한 실적 발표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 이후 선반영에 따른 매물 출회되며 장 중 하락 하기도 했으나, 버냉키 전 연준의장의 경기에 대한 낙관론과 대규모 자금 투입이 기대되는 항공 업종과 개별 기업 호재성 재료에 기대 상승 전환에 성공. 다만 장 막판 법안 내용에 대해 일부 논란 속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 반납(다우 +2.39%, 나스닥 -0.45%, S&P500 +1.15%, 러셀 2000 +1.26%)

미 의회는 상원은 오늘, 하원은 내일 표결을 통해 대규모 재정 부양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 전체 규모는 기업대출에 5 천억달러를 비롯해 실업보험 확대(2,500 억 달러),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2,500 억 달러) 등 2 조 달러. 특히 논란이 있었던 5 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의회 지정 감독위원회가 개별 기업 지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장 후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정 지출 법안 특히 실업 보험 강화에 대해 제도적 오류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시간이 지연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 반납. 그러자 샌더스 상원의원이 실업 보험 강화 반대하면 부양책이 보류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이후 결국 나스닥은 하락 전환

한편, 나이키(+9.24%)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으며, 중국내 매출이 6 년만에 감소했으나, 온라인 판매가 30% 급증(글로벌 온라인 매출은 36% 증가) 이를 상쇄했다고 언급. 더불어 우한 지역을 비롯해 중국내 매장 중 80%가 재개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발표. 이러한 나이키의 발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확실시 되고 있으나 희망적인 부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 이와 함께 버냉키 전 연준의장도 코로나 사태가 자연 재해에 훨씬 더 가깝고, 일시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나, 짧은 침체 이후 급반등을 기록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언급해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국제유가 또한 폭락이후 미 국무장관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유가 안정의 필요성을 논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한 점도 장중 지수 상승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704.76	+5.89	홍콩항셍	23,527.19	+3.81
KOSDAQ	505.68	+5.26	영국	5,688.20	+4.45
DOW	21,200.55	+2.39	독일	9,874.26	+1.79
NASDAQ	7,384.30	-0.45	프랑스	4,432.30	+4.47
S&P 500	2,475.56	+1.15	스페인	6,942.40	+3.35
상하이종합	2,781.59	+2.17	그리스	552.45	+7.68
일본	19,546.63	+8.04	이탈리아	17,243.68	+1.7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항공주 급등 Vs. 반도체 하락

보잉(+24.32%), 아메리칸 에어라인(+10.56%), 델타항공(+15.66%) 등 항공주를 비롯해 원리조트(+12.77%), MGM(+6.32%) 등 리조트, 카지노 업종 부킹닷컴(+8.45%) 등 여행주는 재정 지원 기대와 아시아 지역 코로나 확산이 정체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급등 했다. 옥시덴탈(+11.94%), 아파체(+5.56%), 킨더모건(+6.60%) 등 대출이 많은 에너지 업종도 재정 지원 기대속 급등했다. JP모건(+3.73%), BOA(+0.33%), 씨티그룹(+2.95%) 등 금융주도 동반 상승했다. 나이키(+9.24%)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아시아 지역의 정상화 과정을 언급한 데 힘입어 급등했다.

반면, 애플(-0.55%)는 장 중 시장 안정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라는 점을 이유로 도이체 방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샌더스의 발언 이후 매물 출회되며 결국 하락 전환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5.88%)은 골드만 삭스가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다. 인텔(-2.18%)은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 상향 조정 했으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하락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5.81%)와 아마존(-2.80%) 등 그동안 상승을 하거나 하락폭이 적은 종목군은 매물 출회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마이크론(-1.78%)은 양호한 실적 발표후 시간 외로 6% 가까이 급등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18%	대형 가치주 ETF(IVE)	+2.28%
에너지섹터 ETF(OIH)	-0.23%	중형 가치주 ETF(IWS)	+3.79%
소매업체 ETF(XRT)	+1.75%	소형 가치주 ETF(IWN)	+1.86%
금융섹터 ETF(XLF)	+2.72%	대형 성장주 ETF(VUG)	+0.87%
기술섹터 ETF(XLK)	-0.13%	중형 성장주 ETF(IWP)	+2.3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05%	소형 성장주 ETF(IWO)	+0.82%
인터넷업체 ETF(FDN)	-0.84%	배당주 ETF(DVY)	+2.30%
리츠업체 ETF(XLRE)	+4.44%	신흥국 고배당 ETF(DEM)	+3.03%
주택건설업체 ETF(XHB)	+7.1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3.07%
바이오섹터 ETF(IBB)	-0.55%	미국 국채 ETF(IEF)	+0.06%
헬스케어 ETF(XLV)	+1.33%	하이일드 ETF(JNK)	+2.36%
곡물 ETF(DBA)	-0.14%	물가연동채 ETF(TIP)	+0.97%
반도체 ETF(SMH)	-0.75%	Long/short ETF(BTAL)	-1.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20.02	+4.49%	+22.27%	-38.70%
소재	275.71	+2.20%	+6.97%	-21.46%
산업재	489.20	+5.29%	+8.02%	-24.79%
경기소비재	784.01	+1.10%	+10.87%	-18.50%
필수소비재	524.29	-0.17%	-7.84%	-17.26%
헬스케어	948.94	+1.27%	-2.54%	-15.92%
금융	339.78	+2.66%	+7.49%	-28.17%
IT	1,363.26	-0.28%	+5.25%	-16.04%
커뮤니케이션	143.46	-1.58%	+0.57%	-19.44%
유틸리티	259.84	+2.84%	-6.25%	-23.71%
부동산	179.92	+4.50%	-0.10%	-27.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5.39% MSCI 신흥 지수 ETF 는 3.52%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538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0.60pt 상승한 233.1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22.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①미 의회의 재정지출 합의 ②나이키의 양호한 실적 발표 ③버냉키 전 연준의장의 발언 ④폼페이오와 빈살만의 유가 안정 논의 ⑤개별 기업 호재성 재료에 반응을 하며 상승하기도 했으나, 샌더스 상원의원의 등이 표결 지연 가능성을 제기하자 결국 혼조 마감 했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과 그에 따른 기업실적 부담, 고용시장 위축 등 여러 악재성 재료가 상존한 점도 영향을 줬다.

그동안 미 증시가 일부 재료에 하루 등락폭으로는 역사적으로 하락은 2.5 위, 상승은 4 위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며 투자자들에게 시장 접근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발 빠른 통화정책, 재정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도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는 한국 증시 등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물론 오늘 미 증시 상승 요인 중 대부분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제유가와 외환시장 안정 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여기에 마이크론이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 발표하며 시간 외로 6% 가까이 급등 한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미 증시는 그동안 하락을 키웠던 종목들이 반등폭이 컸던 반면 상승을 하거나 낙폭이 제한된 종목군은 하락했다. 전일 한국 증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왔는데 당분간 관련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기관투자자들 아시아 시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중 하나인 3 월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수는 전월(78.5) 보다 하락한 74.5 로 발표돼 기관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이 2.9p 하락한 67.8 을 기록했고, 유럽은 110.6 에서 95.6 으로 크게 위축 되었다. 반면 아시아는 8.7p 상승한 94.5 로 상승해 아시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미국 2 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2% 상승해 지난달 발표(mom +0.1%)나 예상(mom -0.7%)를 상회했으나,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1 월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5 상승해 지난달 발표치(mom +0.7%)나 예상(mom +0.4%)를 하회했다. 전년 대비로는 5.2% 상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전환 성공

국제유가는 미 의회의 재정정책 합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 했었다. 코로나로 인한 수요 둔화 불안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EIA 가 지난 주 미국 원유 재고가 162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해 예상보다 증가폭이 적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이 축소되었고,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국제유가 안정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전환 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감했다.

달러화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고용시장 불안에 따른 우려가 높아졌으며, 이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가 독일의 ifo 기업환경지수가 예상(87.9) 보다 부진한 86.1로 발표되는 등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폭을 제한했다. 한편, 노르웨이 크로네, 러시아 루블화, 브라질 헤알화 등 원유시장과 관련된 환율은 달러대비 1~3%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재정 지출 합의 소식에 기대 장기물은 상승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 우려가 높아지자 단기물은 하락하는 등 혼조 세를 보였다. 한편,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은 12 개월 평균(2.40 배)를 상회한 2.53 배를 기록했으나 간접입찰은 12 개월 평균(60.1%)를 하회한 52.1%로 기록했다

금은 달러 약세 불구 위험 회피 성향으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고용시장 둔화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24.49	+2.00	+17.57	Dollar Index	100.864	-1.15	-0.29
브렌트유	27.39	+0.88	+10.09	EUR/USD	1.0888	+0.93	-0.25
금	1,634.30	-1.74	+10.38	USD/JPY	111.19	-0.04	+2.88
은	14,873	+4.32	+26.34	GBP/USD	1.1901	+1.18	+2.52
알루미늄	1,537.50	-0.65	-6.82	USD/CHF	0.9759	-0.57	+0.78
전기동	4,855.00	+0.85	+2.32	AUD/USD	0.5959	+0.02	+3.22
아연	1,836.00	+1.13	-0.54	USD/CAD	1.4200	-1.81	-2.10
옥수수	348.50	+0.36	+3.95	USD/BRL	5.0378	-1.17	-1.39
밀	580.00	+3.29	+14.12	USD/CNH	7.1298	+0.62	+0.78
대두	881.50	-0.59	+6.78	USD/KRW	1229.90	-1.58	-1.27
커피	129.95	+3.46	+19.99	USD/KRW NDF1M	1222.75	-0.61	-2.49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59	+1.27	-33.22	스페인	0.868	-0.80	-34.80
한국	1.620	-10.20	+11.00	포르투갈	1.049	-1.60	-39.20
일본	0.050	+0.90	-3.10	그리스	2.290	-10.50	-151.20
독일	-0.262	+6.00	-2.70	이탈리아	1.539	-2.20	-88.90